



## 한국 식육 연구회 제13차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 개최



한국식육연구회(회장 채영석)는 8월 21일 충북 대학교 농과대학 1층 협동 강의실에서 회원 및 식육관련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종원(친호 인티) 부장은 “육계의 소비동향 및 제품개발 방향”과 노경상(농림수산부) 과장의 “한국 축산물

가공정책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Henk Hoogeankaonp의 “자동 사출을 이용한 소세지 제조기술”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 각종 특수란 품질표시기준 마련 지적 지정된 기관에서 일괄처리 필요성 제기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무공해, 저공해, 특수성분강화” 등을 표방하는 특수란 및 자연란에 대해 품질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품질표시 기준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란 유통실태 조사결과 분석에 따르면 각종 특수란은 소비자의 건강지향의식에 편승 “무공해, 저공해” 또는 “특수성분강화” 등을 내세워 일반란 보다 비싼값에 판매되고 있으며, 구입시 단지 상표에 쓰여있는 내용만을 보고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상표에 쓰여있는 내용에 대해 공인 받을 수 있는 지정기관이 현재 없기 때문에 상표내용은 각업체가 저마다 작성, 표기하고 있는데 계란들에 가장 기본적인 표시내용인 유통기한 및 생산일자 조차도 표시되지 않은채 유통되고 있으며, 14개 제품중 절반이상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았고, 생산 또는 포장일자를 표시한 제품이 하나도 없는점을 감안할때 지정된 기관에서 품질 표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계란수매 비축자금 추가 지원 17억원, 양계조합에 지원

축협중앙회는 계란가격이 8월초에 생산비선 이하인 바닥세로 떨어짐에 따라 서울·경기양계조합 등 전국 7개 양계조합을 통해 긴급수매키로 했다.

이번 추가수매량은 3천6백만개로 17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축협은 지난해 대폭락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여 오다가 3월중순 최고수준을 기록한 이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자 지난 6월과 7월 2개월간 18억원을 들여 3천8백만개를 수매한바 있다.

산란계란가격추이 (단위:원/대란 10개)

월	월												연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87	가격	435	384	384	411	415	371	346	365	450	430	353	359	392
1988	가격	362	370	348	367	340	327	310	330	451	425	424	515	381
1989	가격	551	584	606	667	594	469	495	458	542	545	568	572	554
1990	가격	561	549	569	622	662	595	468	461	639	667	561	552	576
1991	가격	518	521	459	441	424	376	407	454	545	488	528	623	481
1992	가격	608	639	795	729	595	471	501						

◇ 8월 일일 가격

1	3	4	5	6	7	8	10일
431	431	431	396	396	396	396	398

제13회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 개최  
2만5천여명 참석 대성황

사단법인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회장 정상수)는 지난 11~13일(2박3일)간 경주 보문단지에서 제3회 전국 농어민후계자대회를 농어민후계자 및 각계인사 2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리에 개최했다.

“우리손! 미래의 생명”이란 주제아래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최양부 박사(농촌경

제연구원)의 “이 시대의 농어민후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란 주제별토론회 및 세미나를 비롯해 각종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렸다.

'92년도 양축농가 육성사업 추진 위원회 개최

'92년도 양축농가 육성사업 지원 대상농가 선발을 위한 도 추천 위원회가 지난 8월20~21일 양일간에 걸쳐 축협경기도지회 장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수가 추천한 농가를 심사, 축종별 사업계획량의 배수로 농가를 선정하여 도지사에 추천하는 내용을 의제로 다루었다.

도체위생 지도관리 강화  
위생관리 철저 지시

농림수산부는 도계장 및 도계육의 위생관리상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도계장들의 위생검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도계육 위생관리를 위해 양계농가에 대해 유해물질 잔류방지를 위한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도계장에 대해 위생관리실시상태를 철저히 감독은 물론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검사사업을 철저히 추진키로 했다.

표준설계도 제작 배포

## 축산폐수 정화시설

농림수산부는 축산폐수 정화시설 표준설계도 및 해설서를 8월10일 부로 제작 배포함으로써 그동안 양축농가에 많은 부담을 주었던 설계비용의 절감은 물론 신고절차도 대폭 간소화 했다.

시군·읍면 및 축협 등 생산자 단체에 배포된 표준설계도 및 해설서는 대부분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을 위한 퇴비화시설(톱밥발효돈사 및 톱밥발효우사, 건조식, 통풍식, 교반식 톱밥발효시설)로써 농림수산부와 환경처가 축산폐수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라 '92년 3월 환경처로부터 축산폐수정화시설로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표준설계도에 의해 양축농가가 원하는 설계도면을 선택하여 그 사본을 첨부할 경우, 환경담당기관에서는 이를 자가설계도서로 인정, 신고만으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간소화 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환경 및 수질오염방지는 물론 축산의욕 고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 양계·돈 계열화사업 지원대상자 확정

### 8개업체 선정, 업체당 35억씩 지원

농림수산부가 축산업구조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양계·돈 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난 10일 농림수산부는 계열화사업자금을 신청한 11업체에 대한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 분석

한 후 양계·돈 각각 4개업체씩 선정하고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농림수산부가 선정한 계열업체들은 양계의 경우 전북양계협동조합(육계), 축협중앙회, 두산종합식품, 고창양계(산란계)이며, 양돈은 (주)도드람, 한성축산, (주)세화, 경북양돈협동조합 등 모두 8개업체가 선정되었다. 이들 업체에 대해 업체당 35억원씩 총 2백8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 농업진흥지역, 투자효과 판단될때 편입

### 절대농지도 일단포함

정부는 지난 22일 정당회의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당초 방침대로 강행, 지정작업을 연내 모두 끝내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절대농지를 우선 농업진흥지역으로 잠정 지정한뒤 내년 1년동안 농민의 의견을 수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농민이 희망하는 경우와 투자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진흥지역에 편입, 논농사는 물론 축산단지나 시설원예등으로 활용토록 지원키로했다.

## 7월중 사료생산 전축종 감소

### 총생산 1백3만3천2백톤

축산물 소비증가에 힘입어 그동안 증가세를 보이던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 축종에서

감소되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7월 한 달 배합사료 총생산량은 1백3만3천2백여톤으로 한달전 1백6만여톤보다 2.3%가 줄었으나 전년 같은 기간 94만여톤 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축종별 생산량을 보면 양계사료가 전월 33만1천톤보다 4.3%,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33만3천톤에 비해 4.9%가 줄어든 31만7천여톤이 생산되었으며, 양돈사료는 34만9천여톤으로 지난달 35만4천여톤에 비해 1.5%가 감소한 반면 작년 7월 30만여톤에 비해 16.4%가 증가했다.

### 미국대사관 직통전화체계로 전환

미국대사관의 전화번호가 7월25일 기준으로 직통전화체계로 전환 되었으며, 과거의 교환번호로도 통화연결이 가능하다.

미국 농업무역관  
Charles T. Alexander, 농업무역관장 (02) 397-4188  
김세원, 마케팅 담당 (02) 397-4554  
이명행, 홍보 및 프로모션 담당 (02) 397-4637  
오영숙, 행정 및 총무 담당 (02) 397-4188  
김정미, 농업교역자료(AIMS)담당 (02) 397-4276, 720-7923  
김선숙, 농업교역자료(AIMS)담당 (02) 397-4276, 720-7923  
미국 농업무역관의 팩시밀리 번호는 이전과 "동일"한 720-7921입니다.

미국대사관 농무과  
농무참사관 (02) 397-4297  
Robert B. Macke, 농무관 (02) 397-4297, 4540  
반용건, 농무담당 (02) 397-4163  
최선철, 농무담당 (02) 397-4218  
이영희, 행정 및 총무담당 (02) 397-4297  
임희재, 농업자료담당 (02) 397-4497  
왕화영, 농업자료담당 (02) 397-4189  
미국대사관 농무과의 팩시밀리 번호는 이전과 "동일"한 738-7147입니다.

양계장의 희소식

# 왕겨취급전문



본사는 양계농가에서 깔짚 및 계분건조시에 활용하는 양질의 왕겨를 무제한 구비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즉시 보급해 드립니다.

**전화주문 즉시배달**

## 석 정 농 산

주소 :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회암2리 585  
전화 : (0351) 866 - 4336